

신약 역사, 문학 및 신학

세션 19: 요한의 결론과 사도행전

소개 Ted Hildebrandt 박사

A. 그리스도의 영광 리뷰 [00:00-4:48]

A: AB 결합; 00:00-10:44; **요한 복음의 영광, 공관복음 보충**

안녕하세요. 요한복음에 대한 강의를 몇 번 했고, 지난번 요한복음에서는 인물 묘사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주요 인물의 인물 묘사: 니고데모, 나다니엘, 우물가의 여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마로 마무리했습니다. 도마는 종종 "의심하는 도마"로 알려져 있고, 저는 도마의 용감하고 호기심 많은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를 그저 "의심하는 도마"라고 부르면 그의 인물을 많이 놓치게 됩니다. 고든 칼리지의 헛트 박사는 요한복음의 인물에 대한 책을 제작하고 있으며, 약 600페이지 분량의 책이 될 것으로 보이며, 세계의 저명한 학자들이 요한복음의 다양한 인물과 그들이 요한복음에서 상호 텍스트적으로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 설명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민합니다. 우리는 그를 이전에 "예수께서 사랑하신 제자"라고 불렀고, 그는 예민하고 이 사람들과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물을 파악하는 듯합니다. 이제 몇 분만 시간을 내어 요한서를 마무리하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은 요한서를 마무리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토마스에 대해 이야기했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다음으로 요한이 다루는 몇 가지 주제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가 다루는 주제 중 하나는 영광이라는 개념입니다. 영광에 대한 그리스어 단어는 *doxa* 입니다. 그리고 *doxa* 는 *doxology*의 *doxa* 에서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축복이 흘러나오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찬양하고, 하늘의 무리들 위에 그분을 찬양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찬양하십시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doxology*를 불렀습니다. *Doxa* 는 기본적으로 "찬양" 또는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영광이라는 개념은 요한이 이 용어를 사용합니다. 요한복음 1:14에서 그는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과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언급할 때 이 "영광"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런 다음 17장 22절과 24절에서 요한은 이 주제를 다시 다룹니다. 그는 말씀하십니다. 21절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는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이라고 말하자마자 무엇이 떠오르나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신 위대한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전체 장이 있습니다. 기도를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기도에 대해 공부하기에 훌륭한 장입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아버지께 드린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그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2절로 내려가서 “저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드렸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인 것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로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 하나됨, 이 아버지/아들의 하나됨은 교회에 주어졌습니다. “
 우리가 하나인 것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로다.” 교회의 분열을
 생각해보면 꽤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교회가 하나라는 위대한
 진술이 있고,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과 그들의 연합을 반영합니다.
 24절까지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버지, 내게 주신 자들로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내 영광을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영광은
 세상 창조 전에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내게 주신 것이니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것 중 하나는 그의 추종자들이 세상
 창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영광을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기억하셨고 아버지께 기도할 때 그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영광은 요한복음에서 큰 주제입니다. 이 영광, 즉 *doxa* 입니다. 또
 다른 것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방금 살펴보았습니다.

가나에서 혼인 잔치에서, 그가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을 때, 그것은 그의 영광을 나타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주제는 나사로의 죽음에서 다시 다루어집니다. 영광은 거기에 나타납니다. 그런 다음 영광은 사랑을 통해 나타나고 특히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됨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방금 17장 22절에서 읽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은 요한복음에서 큰 주제입니다.

B. 요한, 공관복음 보충서: 어린 시절 이야기도 없고, 가계도 없고, 유혹도 없다 [4:48-10:44]

그리고 이제 제가 다루고 싶은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은 공관복음보다 훨씬 나중에 쓰여졌다고 부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약 학자들은 이에 대해 논쟁하지만 마가복음의 우선순위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먼저 나오고, 50년대, 60년대가 되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에 의존하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공유하지만 마가복음에는 없는 Q 출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Q 출처는 가정적인 출처이지만 기본적으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은 모두 상당히 초기입니다. 요한복음은 훨씬 나중에 쓰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한복음이 공관복음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보충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은 나중에 나오므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좋아요, 그들이 예수에 대해 당신에게 이것을 말했고, 그들은 당신의 왼쪽

눈에 있는 것을 주었습니다. 이제 오른쪽 눈에서 다른 관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여기서 3차원적인 예수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은, 우리가 이전에 언급했듯이, 그는 그에게 92%의 고유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92%는 우리가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완전히 고유한 것입니다. 8%만이 5,000명을 먹인 일과 같은 것으로, 이는 모든 4복음서와 공유되지만, 92%는 요한복음에서 다릅니다. 그래서 요한은 공관복음의 보충 자료로 간주됩니다. 그는 마태, 마가, 누가가 쓴 것을 보충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공관복음의 보충 자료입니다.

이제 여기서 몇 가지 요점을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은 예수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없고, 예수가 베들레헴에 가는 기록도 없고, 헤롯과 동방박사, 동방박사에 대한 기록도 없고, 베들레헴에서 유아를 죽인 기록도 없고, 누가처럼 목자들이 들판에서 돌아오는 기록도 없고, 그가 12살이 되어 성전 구역에 남겨져 성전 지도자들과 논쟁하는 기록도 없습니다. 요한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요한은 "태초에 말씀[로고스] 이 계셨고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은 하나님이셨다"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리스도에 대한 보다 우주적인 관점을 취하고, 따라서 일종의 높은 신학, 예수와 그의 우주적 중요성에 대한 매우 발전된 생각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마태오와 누가 요셉의 관점, 마리아의 관점에서 역사를 기록한 것처럼, 그것은 다루어졌고,

저는 예수를 다른 방식으로 볼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없습니다. 제로. 또 다른 것은, 그는 족보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요셉의 족보를 가지고 있고, 누가는 마리아의 족보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당신은 그리스도의 두 족보를 가지고 있고 요한복음에는 족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좋아요, 그들은 그것을 처리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쫓겨난 그리스도에 대한 유혹은 없습니다. 사탄은 거기에 있고, 그는 사십 일 사십 밤을 금식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와서 "이 돌들을 빵으로 만들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의 천사들이 너를 떠받쳐 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세상의 모든 왕국을 보여줍니다. 만약 당신이 절하고 나에게 경배한다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줄 것입니다." 그 중 아무것도,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사탄에 의한 그리스도의 유혹은 요한복음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그리스도를 유혹하는 것은 거기에 전혀 없습니다. 제로.

산상수훈은 없습니다. 산상수훈은 방대합니다. 누가는 산상수훈을 다양한 형태로 기록했지만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은 방대합니다. 예수님의 3장짜리 설교입니다. 요한은 산상수훈을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이런 정교한 긴 담론이 있었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산상수훈이 있고, 올리브산 담론이 있고, 열두 제자를 파송하는 일이 있고, 마태복음 13장에서

왕국의 비유가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이런 긴 설교를 담론하지 않습니다 . 요한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가 앞서 지적했듯이 사람들 간의 이런 상호 작용, 즉 예수님이 나타나서 나다니엘을 만나는 일을 더 많이 하는 듯합니다. “빌립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당신을 부르기 전에 당신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일이 더 많습니다 . 요한은 마태가 매우 잘하는 긴 담론보다는 사람들과의 상호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산상수훈이 전혀 없고, 비유도 없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모두 씨 뿌리는 사람과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달란트에 대한 비유, 그리고 누가가 강조하는 모든 종류의 비유는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 나사로와 제비, 탕자의 비유와 같은 다른 종류의 비유를 제공합니다.

마태복음에서 볼 수 있는 비유는 누가복음에서 볼 수 있는 비유와 다소 다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비유 중에서도 마태와 누가복음에는 수많은 비유가 있고, 마가복음에도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모든 비유 중에서 요한복음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0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적 가르침이 다른 세 사람에게서 받아들여지는 반면, 요한은 비유와는 다른 방식으로, 비유가 전혀 없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유대 사역, 다른 복음서 대부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고, 그들이 고기를 잡고, 반대편에 그물을 던지고, 그들이 물고기를 잡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옆에서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갈릴리 바다, 갈릴리 사역,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 올라가셔서 그들이 거의 절벽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장면 등 모든 초점은 요한복음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갈릴리 이야기들은 모두 요한복음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주로 예수님이 유대에 오실 때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매우 유대적인 초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올라오거나 돌아오실 때입니다.

C. John이 수난주간에 초점을 맞춘다 [10:44-12:45]

B: CE 결합; 10:44-18:22; 열정, 나는, 아버지/아들

요한복음 에는 그리스도의 수난주간에 대한 초점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많은 부분이 그리스도의 수난주간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면 흥미롭습니다. 요한복음의 많은 부분이 그리스도의 마지막 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지막 주는 요한복음의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며 수난주간에 초점을 맞춥니다.

어떤 사람들은 멜 깁슨의 영화 "패션"을 언급하는데, 흥미로운 묘사이고, 실제로 폭력에 대해 상당히 사실적일 것입니다.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특히 예수님 앞에서 사람이 구타당했을 때 일어난 일과 군인들이 그를 조롱하는 묘사가 있습니다. 종종 유대인들은 항상 40대가 아니라 39대를 때렸습니다. 40대가 되어 사람을 죽이면 심한 일이기 때문에 항상 조금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당신을 목숨의 한 치 차이로 때렸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수난주간과 예수님의 고뇌에 대한 묘사는 요한복음에서 다른 어느 곳보다 더 많이 묘사됩니다. 그는 유대 사역, 예루살렘에 초점을 맞춘 다음, 그리스도의 마지막 주에 초점을 맞춥니다. 마지막 주, 그리스도의 생애의 마지막 날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요한복음 19장까지, 책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6장은 엄청난 분량입니다. 6장입니다. 거기에 큰 덩어리가 있는데, 전부 그리스도의 생애 마지막 날, 겐세마네에 가는 것, 체포와 재판, 유다의 배신, 베드로의 부인,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마지막 날인데, 요한복음 전체가 21장인데, 그중 6장이 그리스도의 마지막 날에 대한 내용이어서 매우 집중되어 있습니다.

D. 예수께서 “나는”이라는 진술을 통해 가르치심 [12:45-15:55]

이제. 요한 복음이 주로 유대에서 전개된다는 것을 언급했으므로 갈릴리 사역과는 대조적으로 유대에 초점을 맞춥니다.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는데, 예수께서 비유로 가르치지 않으셨지만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에게만 있는 독특한 점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데 비유가 아닙니다. 천국은 큰 식물로 자라는 겨자씨와 같습니다. 아니요,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나는” 진술이라고 불리는 것을 사용합니다. 예고 *에이미* 는 “나는” 진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

나는” 진술 중 일곱 가지를 뿌린 다음 예수께서 이 “나는” 진술로 의미하는 바를 전개합니다. 예를 들어, 이 “나는” 진술 중 몇 가지를 나열해 보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예수께서는 비유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요한에게는 비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나는” 진술을 통해 가르칩니다.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8:12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10에 아주 유명한 “나는 문이다.” 그리고 또 10에 “나는”이 있는데, 이 구절을 설명하는 그림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이것은 예수님을 그의 양을 돌보는 선한 목자로 묘사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유명한 것이 하나 있는데, 나사로 이야기에 나옵니다. 나사로입니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부활이다. 그리고 우리가 암기 구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매우 강력한 진술입니다. 그것은 매우 배타적인 진술입니다. 우리 문화는 배타적인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6. 여러분은 모두 그것을 암기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15장 5절. 그래서 이 다양한 “나는” 진술,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빛이다”, 예수께서 “나는” 이라고 말씀하신 다양한 진술,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이것도 놓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안에서

구약의 메아리를 듣습니다.

이제, 그가 여기서 구약성경을 인용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불타는 떨기와 모세와 출애굽기 3:14에서 이 메아리를 듣습니다. “나는 있는 자이다.” 예수님은 이 에고 에이미(*ego eimi*) 를 그리스어로 “나는 있는 자이다”라고 사용하셨고, 심지어 바리새인들 중 어떤 때는 예수님이 “나는 있는 자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정말 반응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이 가장 신성한 신의 이름인 여호와, 또는 야훼, 불타는 떨기에서 돌아오는 나 자신에 대한 귀 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런 종류의 함축성, 또는 그저 이런 종류의 성경적 메아리가 여기에서 발견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 성령과 성부/성자의 관계 [15:55-18:22]

이제 요한이 한 또 다른 일은 성령의 임재를 묘사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행전과 그에 따른 몇 가지 결과를 살펴볼 때 성령의 임재에 대해 더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임재는 예수께서 떠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임재로,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실 것이라고 묘사합니다. 저는 킹 제임스 버전을 사용할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킹 제임스 버전에 머리가 꽂혀 있었기 때문에 킹 제임스 버전을 사용할 것입니다. “내가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이 보혜사는 그리스어로 파라클레 테 입니다 . 파라 - 파라는 파라 교회 조직은 클레테 와 함께 제공되는데 , 기본적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파라클레테는 “곁에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곁에 부름을 받았고, 저는 어원학을 하는 것을 싫어하고 실제로 문맥이 어원학이나 단어의 역사를 이깁니다. 어원학이나 역사보다는 단어의 용법과 문맥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배경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 곁에 부름을 받은 자”는 누구일까요? *보혜사인 것으로 밝혀졌지만*, 그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알아내면 뭔가 의미가 있는데, 변호사와 비슷합니다. 곁에 부름을 받은 자는 변호사이거나, 아니면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더 나은 표현은 “변호인”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께서 아버지께 우리를 대신하여 변호인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이 *보혜사*입니다. 그 단어의 실제 의미는 보혜사가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의미는 놓친 것 같습니다. 오히려 변호인, 변호사, 여러분을 돕기 위해 곁에 오는 사람이라는 개념입니다. 종종 법적인 맥락에서 사용됩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언급한 성부와 성자의 관계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자가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을 보시고, 이 친밀함을 느끼실 것입니다. 아름다운 기도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세상 창조 전에 내가 당신과 함께 가졌던 영광을 그들도 보고,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정말 멋진 기도문이에요.

예수님 의 대제사장적 기도문이에요 . 여기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친밀한 대화에서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아름답죠. 성경에 나오는 놀라운 기도문 중 하나예요.

마. 요한의 일반적인 구절: 참으로, 아가페 [사랑], 로고스 [말씀] [18:22-22:44]

C: FG **결합**; 18:22-25:07; John's Style

이제 요한의 특징적인 단어 몇 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매년 고든 칼리지에서 그리스어를 가르칠 때마다 항상 학생들에게 요한 1서를 읽게 하고, 그런 다음 보통 요한과 요한 계시록으로 넘어가서 요한 복음 어휘에 익숙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우 흥미로운 점은 요한이 말하는 이러한 공식적인 단어를 반복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중 일부는 킹 제임스 버전을 아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는 요한복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멘, 아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뜻이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는 요한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가 차용한 공식 중 하나이고, 요한은 이러한 핵심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은 핵심 단어와 구절, 그리고 이런 종류의 문학적 작은 공식을 사용하는데,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진 구전 방식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구절들은 반드시 기록된 것이 아니었을 때 기억하고 전수하는 구전 방식으로 사용되는

고정관념적인 구절일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런 고정관념적인 공식을 따서 “진실로, 진실로” 또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를 사용합니다.

그는 사랑받는 제자이므로 이 단어 *아가페* [사랑] 를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특히 요한 1서에서 이것을 볼 수 있지만 복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스어에는 사랑을 나타내는 여러 단어가 있는 반면 히브리어에는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가 하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어에는 *아가페* [자기 희생], *필레오*, 형제 사랑, *스토르게*, *에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에로스*는 더 열정적인 사랑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이 단어들을 분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아가페* 와 *에로스*, *필레오*를 너무 멀리 분리했습니다. 저는 이 단어들에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사랑에 대한 이 네 단어에 대해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차이점을 보려고 하지만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모두 어느 시점에서는 “사랑”으로 번역되지만 사랑은 분명히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존은 ‘*아가페*’ 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것은 그에게 큰 단어이고, 자기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하며 정말 중요합니다.

“ 태초에 말씀[*로고스*]이 계셨고 말씀[*로고스*]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로고스*]이 하나님이셨느니라.” *로고스*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런 다음 요한은 그리스도를 이 *로고스* 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고 아마도 옳을 것입니다. 이 로고스는 일종의 우주적 힘, 우주의 조직 원리이며 우주의 질서 대 우주의 혼돈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고대 근동 종교 구조에서 질서와 혼돈 사이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로고스 ,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립니다.* *저는 또한 로고스 , 즉 하나님의 말씀* 에는 이중적 의미나 삼중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사람의 표현과 육신으로 된 하나님의 개인적 소통, 그리고 계시 자체입니다. 아마도 그것이 말하는 더 나은 방법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즉 *로고스에서 나옵니다 .*

These는 존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 일부이며, 그는 이 단어들을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그는 정말 많은 단어를 반복하고 , 그는 이것을 작은 조정과 함께 합니다. 그는 이 단어들을 조정하는데, 마치 고든에서 그레이엄 버드 박사의 강의를 들은 것처럼, 거의 그는 이러한 고정관념적인 공식을 가져와 조정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마치 재즈 연주자가 약간의 아르페지오를 연주하거나 약간의 아르페지오를 연주하는 것과 같고, 그는 이것을 연주하고, 모든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노래를 가져와서 이 작은 트릴리한 것들을 연주하고, 그것을 덧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존은 그것을 하고, 그는 이러한 작은 고정관념적인 공식을 가져와서 약간씩 변형합니다. 재즈 연주자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같은 노래를 계속해서 연주하지만, 그는 매번 그것을 조정하여 독자들에게 약간 다르게 만듭니다.

나. 리치 대조와 예수님이 사랑하신 제자 [22:44-25:07]

마지막 으로 요한은 대조가 풍부합니다. 요한의 작품에서 빛과 어둠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중에, 2세기에 여러분은 이러한 영지주의를 더 많이 접하게 될 것이고, 빛과 어둠 사이에는 더 큰 대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한이 빛과 어둠의 대조를 택하는 일종의 원시 영지주의적 반응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심지어 현대적인 것들에 있어서도 빛과 어둠을 사용합니다. 저는 방금 다스 베이더의 이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빛의 세력과 광선검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그래서 여러분은 빛과 어둠 사이의 갈등을 보게 되고, 그것은 매우 유명한 루카스의 영화인 스타워즈에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빛과 어둠의 모티브를 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예수에 대해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이 제자가 이 책을 쓸 때, 그는 자신이 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예수가 사랑한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매우 소중히 여겼던 사람에게서 예수에 대한 관점을 얻는 것은 꽤 멋진 일입니다. 그는 자신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나는 예수가 사랑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자신을 보는 방식의 기초였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자신을 보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삶에서 사랑이란 무엇인가라고 묻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에게서 사랑을 빨아들이려 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우리가 가장 위대한 사랑의 증거를 세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받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 다른 곳에서 사랑을 빨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잔은 가득 차고 넘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사랑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득 차 있고 반드시 무언가를 되돌려받으려 하지 않고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랑을 되돌려받지 않고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기적으로 사는 것보다는 사심없이 살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즘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요한은 요한서에서 예수께서 사랑하신 제자입니다.

H.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기 [25:07-28:57]

D: HJ를 결합합니다. 25:07-36:03; 사도행전의 소개와 그 구조

그리고 이제 우리는 거대한 전환을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과정에서 우리는 과정의 상당 부분을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 보냈습니다. 그것은 부분적으로 제 편견이며, 저는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 연구에서 신약 성경 연구로 넘어갈 때마다 저는 예수님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 그의 가르침, 그의 사역, 예수님이 사람들과 어떻게 상호 작용했는지에 대해 잘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의

아버지와 어떻게 상호 작용했는지, 예수님이 사탄과 어떻게 상호 작용했는지, 예수님이 그의 적들과 어떻게 상호 작용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다른 시나리오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초점을 맞춘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초점이라고 생각하고 따라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에 많은 시간을

할애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께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무덤에서 나오셨고,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모든 것이 바뀝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더 이상 갈릴리 바다와 교회 옆에서

살고 걸으며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가 아닙니다. 사실 사도행전에서는

아브라함 언약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땅 과 씨, 그리고 그의

후손이 온 땅에 축복이 될 것이라는 언약입니다. 이제 그 축복이 예수와 그의

열두 제자들에게 어떻게 성취될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온 세상에 퍼질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나가는 제자들의 폭발적인

모습을 묘사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활이라고 부르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약 40일 후, 그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여러 사람이 그를 보고, 그의

열두 제자들이 그를 보고, 여자들이 그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

중요한 요점입니다. Hugenberger 박사는 부활절에 Park Street Church에서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 그를 처음 본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누가 가장 먼저 증언했습니까? 누가 부활의 증인으로 섰습니까? 바로 이 여성들, 마리아와 여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여성들은 최초의 “사도” 또는 보내진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떠났고 부활했다고 전하는 것은 여성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성들이었고, 그 문화권에서는 일반적으로 여성이 법정에서 증인이 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의 증언이 무효화되었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쓰고 부활을 입증하려고 한다면, 남자들이 이야기를 하게 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이 하는 일은, 여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죽은 자의 부활을 입증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참된 진실을 주고, 성경이 우리에게 사실적인 역사를 주고,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또는 저런 식으로 꾸며낸 것이 아니라, 참된 진실을 묘사하고,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의 증언이 먼저 나오는데, 그것이 문화에 어긋나더라도, 그리고 이런 작은 것들이 계속해서 튀어나와 이것이 꾸며낸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고, 그들이 그저 역사를 말하고, 실제로 일어난 일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제 그들은 일어난 모든 일을 말하지 않고,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그것을 봅니다.

I. 사도행전의 서론과 그 정경적 중요성 [28:57-33:26]

그래서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을 넘기고 있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후에 죽음에서 부활하고, 제자들과 함께 있고, 이 여인들에게 나타나고, 에마오로 가는 두 사람에게 나타나고, 500명이 한꺼번에 보이고, 열한 제자가 한꺼번에 보입니다. 그는 여러 무리에게 보이고, 여러 장소에서 여러 무리에게 보입니다. 그는 항상 같은 장소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외곽의 에마오로 가는 길에 있고, 여러, 여러 다른 맥락에서 여러, 여러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마침내 500명이 그를 봅니다. 그런 다음 "승천"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부활"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는데,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승천은 약 40일 후에 있습니다. 예수는 구름 위로 올라가 날아갑니다. 그는 어디에서 떠났을까요? 올리브 산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길을 잃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 중 일부는 올리브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예배당이 있고 그 예배당은 승천 예배당이라고 불린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이 하늘로 날아오르신 발자국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것을 보기 위해 돈을 원하고 그런 것들이 있으므로 물론 대부분 가짜이지만 예수님은 올리브 산에서 올라갔습니다. 그가 돌아올 때 당신이 보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올리브 산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돌아올 곳이기 때문에 올리브 산에 묻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사도행전으로

넘어가 봅시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말했듯이 큰 변화입니다. 사도행전은 기본적으로 교회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단순한 문구이지만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이라고 불립니다.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은 나머지 성경, 나머지 신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책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사도행전은 기본적으로 역사를 제공합니다. 로마서,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와 같은 서신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러한 서신이 쓰여진 이유의 근거가 되는 역사를 제공합니다. 데이브 매튜슨 박사의 강의를 보면 훌륭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각 서신을 언급하며 서신의 계기는 무엇이었고 사도 바울이나 야고보 또는 다른 사람이 서신을 쓰게 된 촉발 문제는 무엇이였을까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글을 쓰게 된 촉발 문제는 무엇이였을까요? 그리고 서신은 그 문제에 어떻게 답할까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역사를 알려줄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이 서신에 대한 역사적 틀을 제공한다고 생각하며, 그래서 사도행전을 꽤 잘 배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서신을 읽을 때 우리는 그것을 꽤 잘 배울 것입니다. 서신 뒤에 있는 역사적 상황은 무엇이였을까요? 따라서 정식으로 사도행전을 공부하면 다른 서신들의 기초가 되는 역사를 알려줍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한 가지 더 논의해 보겠습니다. 바울의 서신 중 일부, 예를 들어 목회서신은 사도행전 이후에 나올 것이므로 바울은 사도행전이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 솔직히 말해서 매우 갑자기 끝납니다. 사도행전은 갑자기 끝납니다. 사도 바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이 끝나면서 그는 카이사르 앞에서 법정에 섭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고 사도행전은 그 지점에서 끝납니다. 그런 다음 바울이 카이사르 앞에서 재판을 받은 후에 쓴 것으로 보이는 디모데후서와 다른 서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서신이 몇 개 있고 물론 요한 계시록도 있는데, 요한이 훨씬 나중에 쓴 것이고 서기 98년경에 정경을 마무리합니다.

J. 사도행전의 구조: 복음의 확장 [33:26-36:03]

이제 사도행전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도, 우리는 이 과정을 위해 암기했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 책의 전체 흐름과 구조를 알려줍니다. 한마디로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성령은 큰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기억하십니까? 누가 복음의 큰 주제 중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는 오순절 전이었고, 예수님과 함께 기록되었습니다. 누가는 성령을 사용했습니다. 성령은 마리아의 아기가 태에서 뿜을 때, 그녀가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이야기할 때, 그리고 성령이 누가복음의 초기 인물들에게 내려올 때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도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사용합니다. 누가는 성령을 많이 사용하는 작가인 듯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지금 이 증인들이 있고, 예루살렘[중심]에서 유대로, 유대의 지파 지역인 사마리아로 퍼져 나가 사마리아인들과 땅 끝까지 이르는 지리적 이동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를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온 땅에 축복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창세기 12장과 창세기의 다른 곳에서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까지, 사마리아까지의 장이 있고, 이것들은 장들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는 사도행전의 1-7장, 유대에서 사마리아까지, 8-12장, 그리고 세상의 가장 바깥쪽까지, 이 부분은 대체로 바울이 세 번의 선교 여행을 하는 내용입니다. 13-28장. 그래서 13-28 장에서는 바울이 세 번의 선교 여행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세 번의 선교 여행 이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투옥되고, 그 세 번의 선교 여행 이후, 그는 팔레스타인[카이사랴]에서 2년 동안 투옥됩니다. 그는 로마로 보내지고, 로마까지 긴 항해를 하게 되고, 배는 추락하고, 마침내 그는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서 끝납니다. 이 책은 바울이 로마에 투옥되는 것으로 여기서 끝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책의 거시적 구조입니다.

K. 대체 구조: 선교사와 그들의 현장 [36:03-43:11]

E: Combine KL; 36:03-49:33; **선교사와 현장, 행전에서의 생략**

이제 이것을 보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구조를 보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선교사가 있고, 선교지가 있습니다. 아래에 장의 기초가 있습니다. 우선 베드로와 스테반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초반 장은 베드로가 주로 다룹니다. 베드로와 스테반, 스테반에 대한 거대한 장이 있습니다. 7 장에는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있고, 6장은 스테반이 등장하는 서론입니다. 여기에는 유대가 있는데, 주로 베드로와 스테반이 유대에 초점을 맞춥니다. 작전의 근거지는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중심적이며 초기 교회에서 일어날 일은 박해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있을 것입니다. 박해가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인 요한의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형제가 있고, 야고보는 초기 교회 순교자 중 한 명이 될 것이고, 그는 일찍 죽을 것이고, 스테반은 초기 순교자 중 한 명이 될 것입니다. 스테반은 돌에 맞아 죽을 것이고, 구약에 대한 아름다운 묘사가 담긴 이 훌륭하고 긴 구약 설교를 할 것입니다. 유일한 문제는 사람들이 그에게 너무 화가 나서 돌을 집어서 그를 죽였기 때문에 설교가 단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고 아름다운 장에 있는 스테반의 위대한 연설은 구약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런 다음, 바울이 거기에 있고 바울은 이것을 보고 바울은 스테반의 죽음을 목격합니다. 거기에는 아마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그가 본 것에 대한 매우 긴 설명이 있습니다. 8-12장에는 바나바와 빌립이 있습니다. 빌립은 사도행전 8장에서 에티오피아 환관과 함께 가서 에티오피아 환관을 만나고 그 사람이 나와서 “이봐요, 제가 뭘 읽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고, 그 사람이 나와서 천사가 와서 빌립을 데려가서 날려보냅니다. 이런 종류의 전도에서 천사가 그를 데려가서 “가서 그 사람과 이야기해 보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에티오피아 환관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성경을 설명합니다. 그는 그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그는 이사야를 읽고 있고, 그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빌립과 이사야/예수 사이의 훌륭한 연결이 있습니다. 그는 또한 흥미로운데, 그에게는 예언하는 딸이 네 명이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매우 흥미로운 점은, 드보라와 바락이 재판관기 4장과 5장에서 다루어졌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드보라와 바락이 있었고,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고, 그녀는 여선지자였고, 그녀는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라피돗 이라는 남자와 결혼했고, 그녀는 기혼 여성이었고, 여선지자이자 재판관이었고, 본문은 그녀가 당시 이스라엘을 이끌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당시 야빈 과 하솔 과 함께 이스라엘을 이끌었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예레미야 시대에 훌다가 있었는데, 그녀는 구약성경에서 여선지자였고, 지금은 그것이 구약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성경에는 모세,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었고, 그들도 여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빌립은 네 명의 예언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아는 한 성경을 쓰지 않았지만, 그들이 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빌립은 나중에 나올 네 명의 예언하는 딸을 두었고, 교회에서 여성의 교회 역할에 대한 큰 논쟁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 당신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당신은 그것을 설명해야 합니다. 빌립과 그의 네 명의 예언하는 딸은 여선지자로 묘사됩니다. 그들은 구약성경에서 홀다가 한 것처럼, 드보라가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는 키가 큰 사람이었고, 바나바는 "아들"을 뜻 하는 *단어 입니다. 나바스는 "위로"를 뜻합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을 뜻합니다. 바나바는 격려자입니다. 고든에도 바나바 그룹이 있는데, 바나바 그룹은 무엇을 할까요? 격려하고 그런 종류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바울이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날 때 큰 격려자가 될 것이고, 그와 함께 갈 사람은 바나바일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교회에 받아들여집니다. 바울은 약간 외부인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죽이고 돌아와서 사도라고 주장하고 선교 여행을 떠나고 싶어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바울을 지역 사회에 적응시키고 바나바는 그런 사람입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몇 가지가 8-12장에서 유대로 퍼졌고, 여기 마지막 부분은 바울입니다. 사도행전은 주로 바울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베드로, 스테반, 바나바와 그 사람들로부터 벗어나 바울로의 전환이 있습니다. 정말 바울의 초점이 있습니다. 바울은 터키로 복음을 전하고, 그는 한 번의 선교 여행을 하고 터키 중부에서 선교 여행을 합니다. 두 번째 선교 여행에서 그는 터키를 지나 마케도니아로 가서 그리스, 아테네, 고린도, 빌립보, 데살로니가로 가서 성경의 책에서 기억하는 모든 장소로 갑니다.

그런 다음 3차 선교 여행에서 그는 에베소로 곧장 가서 에베소에서 3년을 보냈습니다. 그런 다음 3차 선교 여행 후에 그는 예루살렘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돈을 모았습니다.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그는 주로 그리스와 터키에서 온 사람들에게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이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의 기근을 돕고 바울이 그곳에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은 3번입니다. 1, 2, 3번의 선교 여행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돌아오자마자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여기서 그는 예루살렘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돈을 가져왔고 그때 그는 잡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은 감사하며 "이 사람이 우리 사람들을 돕기 위해 돈을 가져왔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바울의 모든 선교 여행에서 선교의 거점은 예루살렘에서 시리아의 안티오크로 옮겨갑니다. 안티오크는 시리아에 있고,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작전의 거점은 북쪽으로 옮겨가고, 그래서 작전의 거점은

안티오크로 옮겨갑니다. 사도행전 13-28장에서 바울의 선교 여행은 모두 시리아의 안티오크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도행전의 구조와 광범위한 범위입니다.

ㄴ. 사도행전의 생략 [43:11-49:33]

그는 여기에 기록된 자료를 어떻게 선택했을까요? 사도행전에는 많은 누락이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이 초기 교회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 사도행전은 초기 교회의 포괄적인 역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정말 꽤 분명한 누락 중 일부는 갈라디아서 1:17에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로에서 바울이 다메섹 도로로 나갔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눈멀게 하시고 그가 말에서 떨어지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쓰러집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입니다. 그는 다메섹으로 갔고, 갈라디아서 1:17에서 말했듯이 3년 동안 바울은 예루살렘이나 안디옥으로 돌아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그는 아라비아로 가서 개종한 후 3년 동안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삶에서 기록조차 되지 않은 엄청난 시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지만, 우리는 갈라디아서에서 그것을 얻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사도행전이 포괄적인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략된 것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울의 3년입니다. 아라비아에서 보낸 시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서 마가와 바나바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1차 선교 여행에서 요한 마가와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갔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면서 요한 마가에 대한 갈등이 생겼습니다. 마가서를 다룰 때 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바울과 요한 마가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요한 마가의 삼촌인 바나바는 그를 데리고 키프로스로 돌아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터키를 거쳐 2차 선교 여행을 떠났다가 마케도니아로 올라갔다가 그리스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바나바와 요한 마가는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각자 키프로스로 돌아가는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점은 1차 선교 여행 이후에 요한 마가와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갔다는 것입니다. 2차 선교 여행에서 이 사람들은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바나바와 요한 마가에 대해서는 별로 들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떠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못합니다. 그 두 남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른 열두 사도는 사도행전이 있지만 사도행전에 대해 정말 말해주나요? 처음에는 베드로에 대해 말해주지만 13장에 이르면 바울과 그의 세 번의 선교 여행과 감옥에 갇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끝납니다. 다른 열두 사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글썄요, 빌립이 날아와서 에티오피아 환관을 돌봐야

했다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그 후 빌립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빌립은 사라졌습니다.

제게 흥미로운 것은 토마스입니다. 우리는 토마스에 대해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토마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토마스는 분명히 인도로 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인도에 가보면, 오늘날까지도 토마스주의 교회가 많이 있지만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토마스에 대한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토마스는 인도로 가서 분명히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거기에 토마스와 동일시하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열두 사도 중 많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주지 않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마티아, 그들은 사도행전 1장과 2장에서 유다를 대신할 열두 번째 사도를 선택하는 데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마티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바도매 와 다른 제자들 중 일부는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야고보는 압니다. 세베대의 아들이며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는 일찍 죽었지만, 다른 사도들 중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한은 초반 장에서 베드로와 어울립니다. 요한과 베드로는 함께 "은과 금은 내게 없네"라고 하며 이 불구자를 일으키지만 사도행전에서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은 지도에서 사라집니다

. 베드로에 대한 내용이 꽤 많습니다. 베드로가 하는 연설도 여러 번 있지만 요한은 어떨까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역사의 다른 곳에서 그것을 얻고 신약의 다른 곳에서 그것을 얻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도행전이 열두 사도와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사도들 각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포괄적인 그림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사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초기 교회와 Foxe's Books of Martyrs와 다른 기록, 요한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주는 계시록과 같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 그것을 알아내야 합니다.

여기에는 바울의 초점이 있습니다 . 하지만 그러면 매튜슨 박사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사도행전이 왜 쓰여졌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사도행전은 초기 교회의 역사로 쓰여졌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더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기록된 사건과 관련이 있었고 그 이유는 기록된 역사의 범위를 제한합니다. 저는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있는 그 진술로 계속 돌아갑니다. 요한은 "내가 예수가 행한 모든 일을 기록한다면 온 세상이 기록될 모든 책을 담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항상 선택적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역사를 쓸 때 비록 그것이 많은 책이라 할지라도 항상 선택적입니다. 결코 완전한 그림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역사의 본질의 일부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떤 것을

말하고 어떤 것을 말하지 않기로 결정했는지에 대한 초점 특징은 무엇인지 물어봐야 합니다. 역사를 쓸 때 그 뒤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떠오르고 어떤 것은 떠오르지 않습니다.

나. 사도행전의 구분자로서의 요약 진술들 [49:33-55:32]

F: M0를 합치다; 49:33-62:47; 유대인의 반대

흥미로운 점은 벤 위더링턴이라는 사람이 신약에서 엄청난 양의 작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도 행전의 요약을 집어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행전을 훑어보면서 사도행전에서 구분으로 보는 요약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지난 학기에 창세기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창세기에 10개의 *틀레도* 진술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이것은 아담의 기록이고, 이것은 셋의 기록이고, 이것은 노아의 기록이고, 이것은 데라의 기록입니다. 그것은 창세기를 이런 종류의 콜로폰이나 공식적인 진술로 나누고, 사물을 나눕니다. 그래서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이런 요약 진술이 있고 위더링턴이 하는 것은 그것들이 본문을 어떻게 나누는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2:42에서 오순절 이후에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제와 떡 떼기와 기도에 전념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경외심으로 가득 찼고 사도들에 의해 많은 기사와 표적이 행해졌습니다. 모든 신자는 함께 있었고 모든 것을 공유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42이며 요약

진술을 제공합니다. 워더링턴이 하는 것은 흥미로운데, 이 요약 진술은 누가가 사용한 출처의 끝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누가가 출처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누가복음 1:1-4에서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누가는 자신이 목격자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아마도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서 바울이 트로아스로 가서 누가를 데리러 갈 때까지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나는 목격자들을 인터뷰했다"고 말합니다. 누가는 자신이 목격자들을 인터뷰했고 "존귀한 데오필로에게 질서 있는 기록을 쓰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데오필로에게 편지를 쓰고, 그는 자신이 목격자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출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워더링턴이 하는 것은 이러한 요약 진술이 문서의 전환을 나타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가 요약할 때, 그는 그 출처에 대한 내용이 끝났다고 말하고 요약하고 그 출처가 무엇에 대한 것인지에 대한 간략한 요약을 제공한 다음 다음 출처로 넘어갑니다. 마치 논문을 쓰고 3x5 카드나 다른 것이 있는 것과 같고, OneNote에서는 다르게 하겠지만, 글을 쓰고 한 출처를 끝내고 치워두고 마지막에 요약한 다음 새로운 출처를 시작합니다. 그가 이것을 제안했지만, 저는 그것이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저는 누가가 한 출처이고 다른 출처로 전환할 정도로 기계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요약이 구분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약 진술에 도달했을 때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여기에 서사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무언가가 닫히고 다른 것이 열리고 있습니다. 문학적 구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수사적 비평이라고 하는 방법이며, 단위를 아는 데는 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이야기는 언제 시작됩니까? 거의 모든 이야기에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특정 방식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 옛적에"라고 말하면 이야기의 끝에 "옛날 옛적에"를 놓지 않고 이야기의 시작에 놓습니다. 그래서 "옛날 옛적에"라고 말하면 이야기가 시작되는 방식이며 공식적인 시작입니다. 그런 다음 일반적으로 이야기가 시작되고 모든 캐릭터를 소개하고 모든 상황을 소개한 다음 모든 것이 절정으로 이동합니다. 그런 다음 스토리 중간이나 끝 부분에 절정이 있습니다. 시작, 중간, 끝이 있습니다. 결국 다양한 캐릭터가 겪는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캐릭터가 어떤 종류의 문제에 연루되고 문제가 절정으로 이어집니다. 스토리의 끝에서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해결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모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제 "모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로 스토리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스토리에는 거의 모든 것과 함께 시작, 중간, 끝이 있는 문학적 단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요약 진술을 통해 그가 자신의 서사의 일부를 마무리하는 방식이며, 그것은 그가 다른 부분으로 넘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들은 모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는 요약 진술이 있는 것은 매우 도움이 됩니다. 이제 그것은 진부하거나 공식적이지 않지만 적어도 우리는 이 요약 진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42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6:7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 나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의 수가 급속히 늘어났고 많은 제사장들이 믿음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31로 넘어가면 또 다른 요약 진술이 있습니다. “그러자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전역의 교회가 평화의 시기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 요약 진술의 몇 가지 예일 뿐이며 그는 이것들을 서사에서 분기점으로 추적합니다. 여러분은 읽어가면서 이것들을 기록해야 합니다. 요약 요점, 우리는 이것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ㄴ. 유대인들의 반대가 강조됨 [55:32-58:01]

사도행전은 유대인들의 반대를 자주 거론하며, 실제로 초기 교회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대를 특징으로 합니다. 이 반대는 매우 강하고 매우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에서 알 수 있듯이 바리새인 중의 바리새인이었던 바울 자신은 역대 4대 랍비 중 한 명인 가말리엘 밑에서 수학했습니다. [아키바 , 힐렐, 샬마이 , 가말리엘]은 오늘날까지도 유대교 전체에 알려진 위대한 랍비였습니다. 바울은 그에게서

수학했으며, 이는 바울이 예리한 지능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기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얻는 것은 바울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반대를 거론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0절에 “주의 말씀이 온 지방에 퍼졌으나 유대인들이 경건한 여인들과 성읍의 유력한 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방에서 쫓아내니라” 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이러한 반대와 유대인들의 추방이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구절은 사도행전 13:46에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도 첫 번째 선교 여행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관례대로 회당에 들어갔다.” 바울은 외지에서 돌아왔을 때 어디에서 사역을 시작했을까요? 그는 여행을 하면서 사람들과 처음 접촉한 곳이 어디였을까요? 그는 “자기의 관례대로” 회당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 안식일에 성경으로 논쟁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질투하여 시장에서 나쁜 사람들을 모아서 폭도[첫 번째 플래시 몹]를 조직하고 도시에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도시에서 폭동을 일으킨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유대인들은 나쁜 사람들을 모았고, 바울이 하는 말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당에서 3주 동안 그들과 논쟁했고, 그런 다음 그들은 나쁜 사람들을 모아서 폭도를 조직하고 바울에 대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0. 유대인의 반란을 강조하는 행적들 [58:01-62:47]

그래서, 다시 한번, 유대인들이 이 폭동을 선동하고 이런 폭동을 선동한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제, 같은 종류의 것이 사도행전 22:23에서 발견됩니다. “그들이 소리를 지르고 겹옷을 벗어던지고 먼지를 공중에 흩뿌릴 때, 천부장은 바울을 병영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끌려나와 사람들 앞에서 말하고, 사람들은 옷을 찢고 먼지를 공중에 흩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바울을 통제하고 있는 로마 군인이 그를 데려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폭동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폭동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다고 믿습니다. 그는 바울을 채찍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폭동 때문에 이 로마인들에게 채찍질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저는 이 맥락에서 바울이 이 로마 군인에게 “나를 채찍질할 셈인가? 로마 시민을 채찍질하는 것이 합당하냐?”라고 말하며 작은 상기시켰습니다. 이 군인은 바울이 유대인 문제 제기자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으므로 그냥 채찍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군인은 “나는 로마 시민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는 “나는 팔과 다리를 희생해서 시민권을 얻었으니까. 로마 시민권이 고맙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나는 자유롭게 태어났어. 나는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어”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물러나고 바울은 그 시점에서 채찍질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기하려는 것은, 본문이

유대인 반란의 성취와 이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이 유대인들이 나쁜 인물들과 협력하여 폭도를 조직하여 불법적으로 바울을 때리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모두 유대인들과 바울에 대한 그들의 박해에 부정적인 빛을 비추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유대인과 바울 사이의 갈등을 주목하세요. 저는 이것이 사도행전의 더 큰 목적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잠시 후에 이 문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제 생각에 누가는 가장 뛰어난 데오빌로를 쓰고 있습니다 . 가장 뛰어난 데오빌로는 누가 복음 1장 1절에 언급되어 있고 사도행전 1장 1절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데오빌로는 두 책 모두에 언급된 사람입니다. 그는 "가장 뛰어난 데오빌로 "라고 불립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일종의 정부 관리이고, 일종의 거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추측이지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카이사르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가 이런 것들을 모아서 " 데오 필로 , 데오 필로 각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 아마 당신은 카이사르와 로마의 일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일어난 일은 이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바울이 폭동을 일으킨 혐의에 대해

무죄하다고 말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는 그 혐의에 대해 무죄하고 누가는 바울에 대해 매우 강하게 반응한 유대인들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은 왜 기록되었을까요? 아마도 바울은 카이사르 앞에 나아가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재판에 직면할 것이고, 누가는 가장 뛰어난 데오빌로가 “바울이 카이사르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이 글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료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자료는 도마가 인도에 갔을 때 도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말해주지 않습니다. 바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바울이 카이사르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누가는 그에게 바울을 도와달라고 부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점이 바울에 맞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요한 마가가 빠지는 것입니다. 초점이 바울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빠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장 뛰어난 데오빌로를 재판하러 갑니다 .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이 근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초점이 되고 역사가 사도 바울에게 초점을 맞춰 기록된 이유가 됩니다. 바울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얻고 바울이 이런 다양한 상황에서 상호작용하는 것을 보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디모데서와 같은 주요 서신을 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 이 모든 신약 서신을 쓸 것이고, 이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배경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이해하는 것이 정경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사도행전이 데오빌로에게 카이사르 앞에서 바울을 변호하는 데 필요한 것을 제공하기 위해 쓰여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소 추측이지만, 저는 그것이 타당한 추측이라고 생각합니다.

P. 사도행전의 주제: 기도 [62:47-65:16]

G: P만 결합; 62:47-65:16 사도행전의 주제

이제 초기 주제 중 일부는 무엇일까요? 초기 교회에 대한 최초의 설명 중 일부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제 예수에서 교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그의 사도들에서 사도들과 교회로의 전환이 있습니다. 초기 주제 중 일부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초기 교회의 큰 주제이며, 기도라는 개념입니다. 사도행전 1:14에 "그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과 함께 끊임없이 기도에 합세했습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주석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여자들과 함께 기도에 합세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여성들을 주목하세요. 누가는 항상 여성에 대해 언급합니다. 이것은 특히 누가복음에서 살피본 것처럼 과부와 고아를 강조합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여전히 교회와 그의 형제 유다와 야고보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마도 유다와 야고보는 실제로 신약 성경을 쓴 것입니다. 야고보는 야고보를 씁니다.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인 세베대의

아들이 아닙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일찍 죽었습니다. 작가 야고보는 예수의 형제였을 가능성이 큼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대조가 아닐까요? 왜냐하면 앞서 마가복음과 다른 곳에서 예수의 형제들이 나타났을 때 그를 데려가려고 했고, 그를 데려가려고 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부활 후에 예수의 형제들이 교회에 참여하고 분명히 개종하여 예수가 자신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2장 42절, “또한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과 교제, 떡 떼기와 기도에 전념하였더라.” 다시 기도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이 기도 개념에 대해 “그들이 기도한 후에 그들이 모인 곳이 진동하니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기도한 후에 그 곳이 진동하니라, 사도행전 4장 31절. 그러므로 기도는 초기 교회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Q. 초기 교회의 조직 - 모세의 문맥 [65:16-67:59]

H: QT를 합치다; 65:16-83:09; 초기 교회의 조직

이제 초기 교회의 또 다른 부분은 조직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조직입니다. 그것은 신명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신명기에서 모세와의 전환이 어떻게 있었는지. 모세는 이제 깨닫고 있습니다. 그는 느보산 에 올라가서 죽을 것입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을 내려다보지만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가 신명기에서 한 일은 이스라엘의 기본 제도를 세운 것입니다. 그는 그들에게 “그래, 내가 가면 주의 종 모세가 죽을 것이다. 나는 죽을 것이다.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선지자들이 올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들의 입에 자신의 말씀을 넣어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거짓 선지자라면 다른 신들을 따르자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지만 나 같은 선지자들이 있을 것이다. 재판관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또한 백성과 그 후 칠십인을 심판하는 데 관여했습니다. 모세는 재판관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재판관들이 뇌물을 받지 않도록 하세요. 그래서 그는 선지자들을 세우고 재판관들을 세우고 레위인들도 세웁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레위 도시들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다른 지파들처럼 상속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질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에게 토라, 율법을 가르칠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재판관들과 선지자들로부터 왕에게로 갑니다. 신명기 17장에서 모세는 “너희가 거기에 가면 ‘다른 민족들처럼 왕을 두자’고 말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좋아요, 왕을 얻으면. 왕이 있는 것이 당신에게 좋은 일이에요, 당신은 왕을 가질 거예요. [다윗은 모세보다 훨씬 후에 왕이 될 거예요.] 모세는 왕이 있을 거라고 말하지만, 왕이 사람들을 속여서 자신의 백성을 이용해 부를 축적하지 않도록 해야 해요

. 그가 아내를 많이 두거나 하렘을 만들지 않도록 해야 하고, 말을 많이 두거나 이런 거대한 군사 단지를 만들지 않도록 해야 해요. 대신 그는 주님을 신뢰해야 해요. 그래서 모세는 왕권, 제사장직, 선지자, 재판관에 대해 설명하고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제도를 세웁니다. 왜냐하면 그는 죽을 것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는 이런 제도를 세웁니다.

사도행전에서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제 열두 사도와 함께한 예수에서 교회로 옮겨갑니다. 이제 사도들을 넘어서고 어떤 종류의 조직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초기 조직에 대한 설명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듯이 여러분 자신의 교파적 연결과 여러분의 교파가 교회 조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십자가 , ADEP라는 두문자어를 사용하여 초기 교회의 이 간단한 조직에 대해 살펴보고 싶습니다.

ㄴ. 초기 교회의 사도들 [67:59-71:28]

첫 번째 그룹은 초기 교회의 사도들이었습니다. 사도는 열두 명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왜 열두 사도가 있었는지에 대해 이전에 논의했던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유다가 나가서 스스로 목을 매달았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사라졌습니다. 이제 열한 명의 사도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열한 명으로 가는 게 어떨까요? 아니요, 아니요, 열두 명이 있어야 했습니다. 열두 명이 있어야 했고 그래서 열두 사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것을 논의할 때 열두 사도와 이스라엘 열두 지파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진주문과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위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열두 기초가 무너지고 열두 기초와 열두 사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너희 사도들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 열두 사도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그러므로 열두 사도와 열두 지파가 있다. 열두 지파를 세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열두 사도를 보는 데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울이 들어와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도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시간을 초월하여 태어난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가 되기 위한 두 가지 요건이 무엇이었는데 기억하십니까? 흥미로운 것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유다를 대신하기 위해 갔을 때 두 가지 요건이 있었습니다. 첫째,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모든 기적을 보았어야 했습니다. 그는 비유의 가르침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와 “나는 선한 목자이다”라는 진술을 보았어야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역 아래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목격했어야 했습니다. 분명히 예수와 함께 여행하던 사람들이 많았고, 그를 지지하던 여성 그룹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처음부터 있었어야 했습니다. 첫째, 그는 처음부터 예수와 함께 있어야 했습니다. 둘째, 그는 부활을 직접 보았어야 했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어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처음부터 예수와 함께 있었고 부활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티아스를 열두 사도로 뽑았고 이제 그들은 열두 사도를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보내진 자들"입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용어 *apostolos*가 "보내진 자"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음, *apostolos*는 "보내진 자"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메시지를 가지고 사역으로 보내진 자들입니다. 하지만 로마서에서 흥미로운 점은 유니아 라는 여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여자 유니아 에게 인사를 건네고 사도, 즉 보냄을 받은 자라고 불렀습니다. 따라서 그녀가 열두 명 중 한 명이 아니지만 "보내진 자"라는 라벨이 붙어 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녀는 사도로 라벨이 붙어 있고 로마서 16장에서 그녀는 여자입니다. 따라서 "사도"라는 용어가 이 열두 명에게 적용되지만 보냄을 받은 사람들도 사도라고 불리는 것 같습니다. 대문자 "A" 사도가 있지만 소문자 "a" 사도가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따라서 거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열두 제자입니다.

S. 초기 교회의 집사들 [71:28-75:52]

집사 여러분, 6장에 무슨 일이 나오나요? 사도행전 6장에서 교회에는

초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리스 과부와 히브리 과부가 있다는 것입니다 . 누가가 항상 누가복음에서 과부와 외동아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누군가가 외동아이일 때 누가는 그것을 언급합니다. 그들이 과부였을 때 그는 그것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서, 여기 6 장에는 매일 음식을 나누어주는 일에서 간과당하는 그리스 과부가 있었습니다 . 그들은 모든 것을 공유했고, 그리스 여성들은 간과당했고 히브리 여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이 있는데, 문화/민족적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집사들을 세웠고, 집사들은 이 일을 돌볼 사람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집사들은 교회의 필요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그리스 여성들은 히브리 여성들이 받는 것과 똑같이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도들은 그 모든 것에 개입하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여성들을 돌볼 사람들이 필요했고 그래서 집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일곱 명을 뽑았습니다. 스테반은 상황을 처리할 정직한 사람인 최초의 집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 6장에 나와 있고 7장에서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연설을 합니다. 그래서 6장에서 스테반이 교회에서 집사라는 큰 책임을 맡게 된 것은 꽤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런 다음 다음 다음 장에서 그는 긴 연설을 하고 그들은 그를 돌에 맞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스테반은 6장과 7 장에서 모두 스테반과 집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중 다수는 집사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몇 가지 사항은, 저는 처음에 매우

매우 보수적이고 독립적인 근본주의 침례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우리는 항상 집사 위원회를 두고 집사 위원회가 목사를 고용했습니다. 집사들이 교회를 운영합니다. 그런 맥락에 있다면, 그 맥락 중 일부는 집사 위원회가 있고 집사 위원회에서 고용한 목사가 있습니다. 집사 위원회는 교회를 운영하는데, 침례교 교회의 정책이 작동하는 방식 중 일부입니다. 교회마다 다르게 처리합니다. 집사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집사는 필요에 따라 시작되었습니다. 교회에는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필요를 충족시킬 조직으로 대응했습니다. 교회에 적합할까요? 교회가 구호소에 참여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적합할까요? 글썄요, 여기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듯이 초기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집사들은 그리스 과부와 히브리 여성 간의 갈등에서 나왔습니다. 교회의 시작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매우 위대한 역사가 있습니다.

교회는 실제로 교회의 물리적 필요를 돌보면서 물리적 필요를 공급했습니다. 이것은 고든 대학의 그린 박사가 구세군 운동에서 선도적인 인물 중 한 명인 위대한 일 중 하나입니다. 이 구세군은 사람들에게 직업 기술을 교육하는 데 매우 능숙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시기에 물품을 받아들이고 흐르게 합니다. 9/11이 일어났을 때 저는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9/11이 뉴욕시의 그레이트 타워에서 일어났을 때 무너졌습니다. 거기에 있던 첫 번째 그룹은 무엇이었습니까? 적십자사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돈을 주세요, 돈을 주세요. 우리에게 돈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구세군이 아니었습니다. 구세군은 10센트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즉시 돕기 위해 담요와 다양한 물건을 나눠주었습니다. 세상에 큰 비극이 있을 때 가장 먼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구세군입니다. 그들은 수십억, 수십억 달러를 모으고 이 모든 관리자들에게 수백만 달러를 지출하여 이 “지원”을 관리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구세군과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 매우 큰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엄청납니다. 성경과 맞습니까? 확실히 맞습니다. 사도행전 6장, 집사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은 과부들에게 음식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T. 초기 교회의 장로들 [75:52-83:09]

이제 또 다른 입장이 있는데, 이걸 좀 복잡합니다. 이걸 교회 정치/정부 또는 교회 조직 구조에 대한 과정이 아닙니다. 제가 그리스어 용어를 알려드리는 건 여러분이 그리스어를 배우기를 바라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스어를 배우기를 바라지만, 이거 들어보세요. 장로들은, 이 단어를 들어보세요, *presbuteroi*라고 불립니다. 장로들은 *presbuteroi*입니다. 어떤 교회가 장로를 특징으로 하는지 추측해보세요. 집사 위원회와 대조적으로 교회의 장로 위원회로서? 장로들은 누구를 지칭하나요? *presbuter*

oi 입니다 . 장로교와의 연관성을 추측할 수 있나요? 장로교회에는 장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단어는 *presbuteros* 에서 유래되었는데 , "장로"로 번역됩니다.

이제, 거의 바꿔 쓸 수 있는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동의어입니다. 동의어가 있을 때마다 공통 영역과 차이점 영역이 있겠지만, 이것은 "감독자"라는 두 번째 단어입니다. *presburteroi*가 "장로"로 번역되기 때문에 이 감독자들은 *episcapos* 에서 번역되었습니다 . *Episcapos* , 어떻게 들리나요? *Episcapos*는 Episcopalian처럼 들립니다. *episcapos* 는 감독자 위원회가 운영하는 *Episcopalians*입니다. 이들은 감독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용어들이 어느 정도 바꿔 쓸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감독자나 *episcapos* 와 장로나 *presbuteroi* 사이에 큰 구별을 두지 않습니다 .

그런 다음 "목사"라는 용어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목사"라는 용어는 실제로 "목자"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poimen* 에서 유래했습니다 . 목자는 이 목자라는 개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처럼 목사는 백성을 돌봅니다. 따라서 목사는 양에게 마음을 두는 것처럼 백성에게 진정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목사라는 용어가 여기에 들어맞습니다. 많은 교회에는 장로회와 수석 장로 또는 교단 장로가 있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장로들 사이에 동등하거나 평등할 것입니다 . 그들은 같을 것이지만 이

사람은 교단 장로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특별한 기능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다른 장로들은 교회에서 다른 기능을 가질 것입니다. 교단 장로는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로 분류될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집사 위에 교단 장로가 있고 이사회는 더 비슷할 것이지만 그는 가르치는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가 다르고,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저는 신약성경이 꼭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구조가 교회의 필요에서 나왔다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 수천 명이나 2천 명의 교회가 있는데, 2천 명을 위한 다른 구조가 있을까요? 뉴잉글랜드에 와서 25명의 교회가 있거나 10명의 가정교회가 있다면요. 그 가정교회는 2천 명의 교회와 다른 구조를 가질까요? 물론 그럴 것이고, 그래서 필요에 따라 구조를 조정할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6장의 요점이었습니다. 필요가 있고, 그 필요를 충족시킬 구조를 개발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의 정치/행정에 많은 유연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다른 교회, 침례교는 구조 면에서 다르게 일할 것이지만, 침례교 내에서도 다른 교회 구조는 교회의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르게 처리할 것입니다. 장로교는 우리가 말했듯이 모두 동등한 장로이지만, 가르치는 장로가 한 명 또는 여러 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 장로, 감독 교회도 다르게 다룰 것입니다. 따라서 각 그룹 내에서도 교회의 규모와

필요에 따라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에는 유연성이 허용됩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조금 이야기해야 할 것은 선지자와 여선지자에 대한 개념입니다. 초기 교회에는 선지자와 여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선지자, 아마도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유명한 선지자는 아가보입니다 . 아가보는 거의 엘리야와 같은 인물 입니다 . 그는 엘리야가 한 것처럼 그 땅에 기근이 올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바울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이 모든 돈을 가지고 팔레스타인으로 갔습니다. 3차 선교 여행 중에 바울은 돈을 모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도울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에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의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것입니다. 선지자 아가보는 바울을 그의 옷의 이 부분으로 묶어서 "이 옷을 입은 사람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감옥에 갇힐 것입니다. 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감옥에 갇힐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가보는 바울에게 미리 경고했고, 그래서 이 선지자는 바울에게 그에게 다가올 일을 말했습니다. " 확실히," 바울이 말했습니다. "저는 거기로 가야 합니다. 물론 그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아가보는 선지자 입니다 . 또한 빌립의 예언하는 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1:8에서: "다음 날 떠나서 카이사레아에 도착하여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일곱 중 한 사람이요..." 그래서 전도자 빌립은 일곱 중 한 사람이었고, 즉 그는 원래 집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예언하는 미혼 딸이 네 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미혼 딸 네 명, 예언하는 미혼 딸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훌다나 드보라, 심지어 마리아와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기억하시겠지만, 누가복음에서 마리아가 드린 위대한 찬송가를 부릅니다. 마리아가 찬송가를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부르고,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경을 주었는데, 사실 그것은 우리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리암은 아마도 구약성경에서 가장 좋은 예일 것입니다. 미리암은 출애굽기 15장에서 그들이 홍해나 갈대 바다를 건널 때, 홍해를 건널 때 돌아서서 이 노래를 부릅니다. 미리암은 또한 민수기 12장에서 모세의 언니이지만, 그녀는 여선지자로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꿈과 환상으로 선지자들에게 말한다. 그러나 모세에게는 얼굴을 마주하고 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미리암은 그 시점에서 책망을 받습니다. 미리암은 여선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더 많은 성경을 주고, 노래를 만들고, 노래합니다. 이런 구조로 선지자와 여선지자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큰 의문을 제기하고,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것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과 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양한 수준의 선지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선지자들과 여선지자들이 신약을 쓸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마태는 신약을 쓰고, 마가도 신약을 씁니다

. 누가도 신약을 씁니다. 저는 마태, 마가, 누가 중에서 세레 요한 외에 선지자로 불린 사람을 모릅니다.

U. 선지자들과 구약에서의 그들의 역할 [83:09-86:08]

I: U- V를 결합합니다. 83:09-90:42; 선지자

구약성서에서 선지자들은 많은 성경을 썼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지 않은 선지자들도 있었고, 결코 정경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올해 우리 반 학생 중 한 명이 예를 들어 네이션을 언급했습니다

.
나단이 다윗과 밋세바에게 온 것을 기억하십니까? 다윗은 밋세바를 만나 그녀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헛 사람 우리아를 죽입니다. 이제 다윗은 헛 사람 우리아의 남편의 죽음으로 임신 사실을 은폐했기 때문에 자신이 무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누가 나타나나요? 선지자 나단이 말합니다. "다윗, 양을 조금 키우는 사람과 양을 수백 마리 키우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다윗에게 다가가서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 여인의 불쌍한 남편을 죽였고, 그 남자는 한 명의 아내만 있었고, 당신은 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그녀를 빼앗았습니다." 나단이 다윗 왕을 꾸짖습니다. 나단이 나단서를 썼을까요? 아니요, 쓰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서 야 셀서에서 떠오른 다른 사람들이 그 책에 나옵니다 . 여호수아서에는 "만약 당신이 이 역사적인

일들에 대해 믿지 않는다면 야셀 서를 찾아보시오.” 라고 말합니다. 당시 미가야나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선지자들이 돌아다녔을까요? 하지만 엘리야와 엘리사가 쓴 책이 있었을까요? 엘리사와 엘리야는 우리가 아는 책을 쓰지 않았습니니다. 엘리야에 대한 책은 없습니다. 열왕기 하권에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한 긴 내용이 있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글을 쓰지 않았고 구전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사람들 중 일부는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했지만 성경의 필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이 일어나는 데에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정식으로 글을 쓰는 선지자는 아닙니다. 모세는 주님의 선지자,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모세는 실제로 무언가를 기록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실제로 태어나기 전부터,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위대한 예레미야서를 쓸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이들은 선지자입니다. 그들은 호세아, 요엘, 아모스와 같은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열두 선지자 중 열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그 예를 사용한 적이 기억나십니까? 엘리사는 바알의 사백 선지자를 물리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봐, 엘리야, 오바다가 북왕국에 약 백 명의 선지자를 숨겼어.” 그래서 당시에는 엘리야

외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이세벨이 그를 쫓았을 때 엘리야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그들이 성경을 기록하는 선지자들을 기록한 다른 선지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달하는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V. 신약성경과 거짓 선지자들의 보존 [86:08-90:42]

그리고, 그래서 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선지자와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이 시점에서 성경 유형의 정경 선지자에 대한 글이 없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경은 끝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것에 대한 부수적인 요점이지만, 저는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신약을 본 적이 있습니까? 마태는 신약을 본 적이 있습니까? 누가는 신약을 본 적이 있습니까? 심지어 요한도 수년 후에 에베소에서 썼을 것입니다. 요한은 신약을 본 적이 있습니까? 답은 아니요입니다. 이 책들은 쓰여졌고, 바울은 빌립보에게, 데살로니가에게, 고린도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고대 근동 지중해 전역에 여기저기에 편지가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일은 그 책들을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들을 모으는 데 몇 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왜 한 교회가 복사기로 가서 그것을 복사해서 다른 교회로 보내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가 있는데, 누군가 와서 그 편지를 가져가게 할 건가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편지를 손으로 베껴서 그것을 원하는 것 같은 다른 교회에 전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편지는 간직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들과 거래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주세요. 저는 콜로새 출신이고, 당신은 에베소 출신인데, 교환합시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복사해서 팩스로 보내거나 이메일로 보내거나 문자로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손으로 베껴서 가지고 다녀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다. 바울은 신약성경을 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신약성경을 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쯤에는 이미 죽었고,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는 확실히 죽었습니다. 바울은 요한계시록을 본 적이 없었고, 그는 죽었습니다. 기원후 68년경에 쓰여졌고, 그 책은 30년 후에야 쓰여졌습니다. 그러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접근 방식이라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정경이 수집되어 확립된 것입니다.

이제 확립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정경이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하는 선지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임을 압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야기한 성경에도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대중적인 교리는 이것이 우리가 진실이라고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선지자가 오더라도 성경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해지는 이유는 사실 구약성경을 보면 참 선지자가 더 많은지 거짓 선지자가 더 많은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3장 같은 곳을 보면 신명기에도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기적을 행하고 표적과 이적을 베풁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참 선지자보다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전 계시와 일치해야 합니다. 이전 계시와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는 요즘 많이 듣지 못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선지자는 “샬롬, 평화가 있기를,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성경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평화와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합니다. 참 선지자들은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회개하라, 죄인들이여. 사람들은 참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머리를 쓰다듬고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들을 말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하지만 더 자주 선지자들은 심판을 전하는 사람들 이었고 그들이 죄를 회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모든 것을 말할 때, 평화와 사랑, 샬롬, 평화와 사랑 같은 것을 말할 때, 당신은 그것에 대해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특징적으로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누가 성경에 대해 정말 신경 쓰나요? 아니요! 우리는 그것을 내뱉고 살롬을 듣고 싶어하고, 평화와 친절을 듣고 싶어합니다. 저는 제 목소리에 어느 정도 냉소적인 어조로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대 문화가 실제로 그 역할을 어떻게 뒤집었는지 매우 흥미롭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머릿속에 뭔가를 넣어보세요. 생각할 거리가 있습니다. 선지자와 여선지자. 빌립은 네 명의 예언하는 딸이 있습니다.

W. 물질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은 공산주의가 아니었습니다. [90:42-95:04]

J: WX 결합; 90:12-97:56; 초기 교회의 자선 활동

그들은 교회의 물질적 필요를 돌보았고, 우리는 집사들이 필요를 돌보아주는 역할에 대해 이전에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장 45절. "그들은 자기 소유와 물건을 팔아 필요한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소유와 물건을 팔아 필요한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4장 32-37절.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소유라고 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궁핍한 사람이 없었고, 서로 나누어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의 이 구절을 가지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또는

그에 비슷한 것의 기초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공산주의는 나쁜 표현이지만 사회주의를 하세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지역 사회에 대한 대응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을 조금 더 신성하게 여길 것입니다. 항상 지역 사회에 초점을 맞춥니다. 사실, 초기 교회는 지역 사회에 초점을 맞췄지만, 질문을 주목하세요. 이것과--제가 문제가 있는 것은 사람들이 오늘날 정치 체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도행전의 이 자료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당시의 성경을 가져와서 오늘날 어떤 종류의 정치적 틀을 지지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여기서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들이 와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부가 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강요한 것입니까? 정부가 그렇게 하라고 명령한 것입니까? 아니요, 아니요, 각 개인은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선택권이 있었고 그것을 줄지 말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전환에 대해 정말 조심해야 하고, 모든 사람이 주어야 하고 우리가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에게서 선택권을 빼앗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께서 그 자유를 빼앗지 않으십니다. 신께서 사람들에게 선택권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권은 여러분에게 있으므로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이런 종류의 구절들을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적용하기 시작하면 조심하세요.

우리는 공산주의의 대부분 상황, 제가 아는 거의 모든 상황에서 공산주의가 들어오면, 그들은 물건을 퍼뜨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압니다. 모두가 가난해집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습니다. 러시아의 스탈린 치하에서 2천만 명 이상이 학살당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마오쩌둥 치하에서 8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히틀러, 모두가 "히틀러는 정말 나빴어. 마오는 히틀러를 일곱 살짜리 아이처럼 보이게 만들었어. 마오는 중국에서 8천만 명 이상을 죽였어. 그러니 공산주의를 원한다면 쿠바로 가세요. 쿠바로 가세요. 왜 사람들이 미국으로 헤엄치려고 합니까? 유고슬라비아로 가서 베네수엘라로 가세요. 이제 그들은 우고 차베스 치하에서 사회주의/공산주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식료품점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식료품점은 지금 황무지입니다. 사람들은 음식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북한을 보고 공산주의에 대해 말해 보세요. 사람들은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북한 사람들이 너무 오랫동안 굶주렸기 때문에 군대에 들어가기 위한 키 제한을 낮추었을 뿐입니다. 북한에서 식량이 너무 부족해서 사람들이 점점 작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꺼내서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해방 신학에 뛰어들기 전에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세요. 공산주의와 해방 신학 사이에는 실제적인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종교를 이용해 이런 매우 사악한 정치적 틀을 뒷받침하려 하고 종교는 정치인의 하녀가 되고 그

지점에서 당신은 진짜 문제를 겪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거기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 어쨌든 이런 것에는 조심하세요.

X. 아나니아, 삽비라 , 그리고 현대의 자선 활동 [95:04-97:56]

아나니아와 삽비라 는 어떻 습니까 ?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기 교회에 와서 “이봐요, 우리는 모든 물건을 팔았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우리는 모든 물건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고, 여기 있습니다.” 사도들은 “이게 당신이 팔아서 주는 전부인가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쓰러져 죽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의 아내가 들어와서 그들은 “이 모든 물건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어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삽비라 는 쓰러졌고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모두 데려가셨습니다. 이제 그는 “당신이 물건을 가졌을 때,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은 당신의 특권이었습니다. 원하는 대로 하기로 선택할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께 거짓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와서 ‘이 모든 것을 주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이 당신이 이걸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선택권을 빼앗기 시작할 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무이고 당신이 해야 할 일입니다. 빨간 깃발을 여러 개 내걸어야 할 겁니다. 기독교는 열린 손으로, 자유로운 선택의 선물로, 개인이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자 하는

열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건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어느 나라가 전 세계를 돕기 위해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이 기부했습니까? 빌 게이츠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는 아프리카 원조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고, 그곳에서 원조와 관련된 문제 중 일부를 해결했습니다. 또한 수백만 명의 사람을 죽이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말라리아로 죽었습니다. 말라리아와 기근, 전염병의 곤경을 완화하기 위한 일을 하는 것은 게이츠와 다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 하는 훌륭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주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것을하기로 선택하고 그 자선 활동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훌륭한 일입니다. 주기로 선택한 자유로운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정치/경제 모델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초기 교회의 물질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었지만 , 그런 종류의 것들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합니다.

초기 교회에는 연합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연합에 대한 진술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오랜 시간을 할애하고 싶지는 않지만 교회는 함께 모여 한 자리에 있었고 그들은 하나로 함께 있었습니다. 2장 4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장은 오순절에 대한 장이며 "모든 신자가 함께 모여 모든 것을 공유하고 각자 의 소유와 물건을 팔아 필요한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전에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Y. 누가는 어떤 자료를 사용했나요? [97:56-100:12]

K: Y-AC 결합; 97:56-113:50; 출처 및 문제점

누가는 어떤 자료를 사용했을까요? 여기서 몇 가지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까지는 거기에 없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처음 15장 동안 누가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그는 가이사랴에 갇혔을 때 바울과 함께 있었고, 그래서 누가가 팔레스타인에 있는 2년이 있을 것입니다. 제 추측으로는 그가 팔레스타인에 있는 동안 마리아를 만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바울이 팔레스타인 해안에 있는 가이사랴에 갇혔을 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는 것에 관해 인터뷰했을 것입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 여행하면서 여행 일기를 썼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그에게 선교 여행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는 바울에게서 이야기를 들었고, 그 이야기들은 아마도 여러 다른 방식과 시간에 걸쳐 계속해서 반복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말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30년, 40년 이상 살다 보면 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게 되고, 결코 정확히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재즈와 즉흥 연주를 조금 하고,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따라 맥락을 달리합니다. 루크는 여행 일기를 들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그는 바울과 함께 트로아스에서 빌립보로 가는 두 번째 선교 여행에 있었기 때문에 여행 일기를 썼을 가능성이 큼니다. 세 번째 선교 여행에서 바울이 빌립보로 돌아왔을 때 그는 다시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테반의 연설은 엄청납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 스테반의 아름다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 사도행전 7장에 스테반의 이렇게 거대한 연설이 있을까요? 아마도 바울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은 9장에서 바울의 대화보다 앞서서 7장에 있고, 바울은 스테반의 죽음을 승인했기 때문에 바울이 스테반의 설교를 목격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아마도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되뇌었을 가능성이 매우 큼니다. 스테반의 설교는 훌륭하고 훌륭했고, 누가는 아마도 바울에게서 스테반에 대한 설교를 끌어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과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베드로의 연설들 [100:12-103:10]

베드로의 연설, 흥미로운 점은 누가가 이런 다양한 연설을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연설은 약 9개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위대한 설교를 모두 들었고,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점은, 올해 신약 문학 수업에서 읽은 기사에 나오는 한 저자가 베드로의 책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베드로의 연설을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와 사도행전을 비교하고, 누가 어떤 부분에서는 이런 연설을 그대로 인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다시 말해, 베드로의 서신에서 사용된 특별한 단어 중 일부가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이런 단어는 흔하지 않아서 딕타포닉 하지 않습니다 . 대부분 요약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가 연설을 인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요약조차도 원래 화자의 받아쓰기를 그대로 옮겨온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원래 화자는 특정한 어법을 사용했고 누가는 조심스럽고 충분히 그 어법을 실제로 옮겨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말할 때 베드로 자신의 받아쓰기와 스타일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2와 사도행전 2:23을 비교해 보면 오순절에 베드로는 "어떤 목적과 미리 아심을 위하여"라는 문구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정확히 두 사람이 공유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가 받아쓰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은이나 금"이라는 문구는 베드로와 요한이 불구자를 고칠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은이나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가진 것은 나가서 걸어가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18에도 은이나 금의 조합이 나옵니다. 이제, 놀랍죠. 아시다시피 이 조합은 약할 것입니다. 은이나 금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언급하지만 베드로의 설교와 베드로서신에 모두 나온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좀 더 복잡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

입니다. 이 문구는 신약성경에서도 많이 발견되지 않지만 사도행전 10:42에 베드로의 설교에 나오고 베드로전서 4:5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연설과 서신 사이에 이런 유사점이 있다고 말하고 싶은데, 이는 누가 역사적으로 정확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무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 우리가 얻는 설교의 대부분은 10절이나 20절 사이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1~2분이 걸린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요약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요약이 무엇인지에 대한 일종의 초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이런 요약에서도 그것을 전한 사람의 구술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AA. 사도행전에서의 베드로와 바울의 평행선 [103:10-107:07]

베드로와 바울이 비교되는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앞장들 사이에는 흥미로운 비교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뒷장에서는 바울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서 바울로의 전환이 있습니다. 저는 또한 마리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했습니다. 베드로, 바울, 그리고 당신은 이 비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구약성경에서 기억하듯이 비슷합니다.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가 어떻게 비교되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모세는 홍해에서 물을 가르고, 여호수아는 요단 강을 건널 때 물을 가르고, 모세는 창을 들고, 그들은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여호수아는 창과 창을 들고, 그들은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모세는 천사에게 다가가고, 천사는 다가가고, 여호수아는

천사에게 다가갑니다. “신발을 벗어라. 너는 거룩한 땅에 있다.” 모세와 여호수아 사이에는 매우 유사한 비교가 있습니다. 리더십의 전환이 있고, 리더십의 전환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리더십의 전환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에 초기 교회에서 큰 사도였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13장에서 나중에 바뀌고 사도행전에서 이어집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부활을 전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2장 22절에서, 바울은 13장 26절에서 부활을 전파합니다. 두 사람 모두 불구자를 고칩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모두 불구자를 고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3:1에서 베드로의 경우, 바울은 14장 8절에서 발견됩니다. 두 사람 모두 불구자를 고칩니다. 두 사람 모두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성령을 의미하는 HS를 줄여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8장 17절에서 이것을 합니다. 저는 그것이 사마리아인들에게서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9:6에서 이것을 합니다. 그는 손을 얹고 몇몇 특별한 사람들이 에베소에서 성령을 받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특별한 치유와 군중이 생기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5장 15절에서 특별한 치유를 행합니다. 그리고 군중이 있고 바울은 19장 12절에서 특별한 치유를 행하고 군중이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그들은 감옥에 갇힙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가고 바울은 감옥에 갑니다. 그들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가고 감옥에서 노래하고 갑자기 두 경우 모두 천사가 베드로와 바울을 풀어줍니다. 베드로는 12장 6절에 있습니다. 바울은 16장 25절에 있습니다.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풀어주고 천사가 와서 바울을 감옥에서 풀어줍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매우 유사한 유사점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책에 대한 강조점이 흥미롭습니다.

바울의 회심이 세 번 언급됩니다. 또한 고넬리우스의 대화에 대한 세 가지 이야기도 있습니다. 고넬리우스는 우리의 이방인이 될 것입니다. 이 시점까지 교회는 대부분 유대인이었습니다. 이제 교회는 전환되어 이방인이 될 것이고 이방인에게 문을 열 것입니다. 윌슨 박사가 말했듯이 올리브 나무는 접붙여질 것입니다. 이제 이 이방인 가지가 올리브 나무 줄기에 들어오면서 세 번의 회심이 기록되었습니다. 고넬리우스의 대화에 대한 이야기는 세 번 언급됩니다.

바울은 세 번이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총독들 사이를 지나갔고 바울은 펠릭스, 페스투스, 아그립바 앞에서 세 번이나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후반부 24장쯤에 나옵니다. 세 번이나 그는 로마 총독 앞에 가서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부분에서 이런 종류의 리듬을 책에서 볼 수 있습니다.

AB. 유다의 죽음의 명백한 모순 [107:07-110:18]

이제, 이 강의에 대한 논의를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이 부분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 1:18과 마태복음 27:5 사이에 모순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18과 마태복음 27:5 이하. 이제, 여기가 바로 유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입니다. 이것이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도행전과 마태복음 사이에 유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모순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스스로 모순되므로 성경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떠납니다.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앞서 말했듯이 이야기를 다르게 보는 증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증인이 이 이야기를 다르게 기록할 수 있을까요? 같은 농구 경기에서 두 명의 심판이 있을 때,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르게 볼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은 파울을 보고 다른 사람은 같은 곳을 보지만 파울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8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다에게 일어난 일이 이렇다고 합니다. “유다는 자신의 사악함에 대한 보상으로 발을 샀다.” 누가 발을 샀을까요? “유다는 발을 샀다.” “ 그곳에서 그는 머리부터 떨어져 몸이 터지고 내장이 쏟아져 나왔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소식을 들었다.” 유다는 어떻게 죽었을까요? 유다는 발을 샀다. 그리고 나서 그는 쓰러졌고 몸이 터지고 내장이 나왔다. 여기에는 정보가 너무 많다. 유다는 이렇게 죽었다.

이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마태복음은 유다가 어떻게 죽었다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27:5, “예수를 배반한 유다가 예수께서 정죄를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쳐 삼십 은화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며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유다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 돈을 성전에 던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가서 스스로 목을 매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유다는 가서 스스로 목을 매달았으므로 그렇게 죽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그 돈을 주워 모아서 '이것을 금고에 넣는 것은 불법입니다. 피의 돈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돈으로 외국인을 매장할 도공의 발을 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오늘날까지 피의 발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두 이야기는 어떻게 달랐을까요? 첫 번째 이야기에서 유다는 발을 사고 나서 머리가 땅에 닿고 배가 터져 나갑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 유다는 대제사장에게 돌아가서 은화 30개를 던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나가서 목을 매달고 그들은 돈을 가지고 발을 삽니다.

AC. 모순에 대한 가능한 해결책 [110:18-113:50]

그럼 어느 것이 맞을까요? 서로 모순되는 듯합니다. 글썄요, 여러분 중 창의적인 사람이 있다면 둘 다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유다가 발을 샀다고 말할 때 그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가 발을 샀을까요? 그렇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30개의 동전으로 나가서 발을 샀습니다. 제가 나가서 샘스 클럽에 가서 물건을 사든, 아니면 제 비자

카드를 아들에게 주고 그가 샘스 클럽에 가서 물건을 사든, 누가 물건을 사든, “이봐, 내 카드에 있어. 내가 물건을 사.” 그가 실제로 한 사람이지만, 여전히 물건을 산 사람은 저입니다. 그럼 발에 있던 유다는요? 그렇습니다. 그는 제사장들의 중개를 통해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가 스스로 목을 매달아 자살한 것은 어떨까요? 아니면 그가 넘어졌을 때 그의 돌풍이 터진 것은 어떨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가 아마도 목을 매달아 자살했을 거라는 걸 알고 있고, 그게 그가 자살한 방식이었고, 그런 다음 그가 목을 매달고 난 후 떨어지고 밧줄이--다른 말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새들이 밧줄을 쪼거나 밧줄이 끊어지거나 그런 일이 있었고, 그가 목을 매달고 난 후 바위에 떨어지고 그의 내장이 터졌습니다. 기본적으로, 당신은 이런 순서로 매달리고, 매달린 상태에서 떨어지고, 내장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화라고 부르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멸시하거나, 그저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답은: 예입니다. 저는 성경을 신뢰합니다. 성경은 저에게 수십만 개의 참된 데이터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볼 때, 일주일 또는 이주 전에 버스에 치인 여자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여자는 버스에 치여 죽지 않았고, 다른 이야기는 여자가 차에서 T자 모양으로 들이받혀 즉시 차에서 떨어졌다고 말했는데, 어느 이야기가 사실일까요? 글썄요, 둘 다

사실이었습니다. 여자는 먼저 버스에 치였습니다. 그런 다음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차가 두 번째로 치여 그녀는 차에서 떨어져 즉시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두 이야기 모두 옳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당신이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단지 다른 관점일 뿐입니다.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현장에 초점을 맞추고 그의 내장을 터뜨리는 것을 더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대제사장들과 은 삼십 세겔과 교수형에 대해 더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이야기 모두 사실이지만 서로 보완적입니다.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사랑합니다. 수천 년 동안 이것을 베껴 쓴 서기관들 말입니다. 그들은 "이 이야기는 이 이야기와 다르니 조화를 이루도록 하자. 본문을 바꾸자"고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본문을 바꾸지 않고 본문을 갈등과 함께 두었고, 갈등을 그대로 두었고, 그것은 저에게 성경의 역사성을 더 잘 말해줍니다. 성경은 이 서기관들에 의해 처음부터 조작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그들은 이러한 명백한 모순을 그대로 두었고, 여러분은 본문을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하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돌아오면 사도행전 2장을 살펴보고 사도행전의 일부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Kelley Chang-Fong이 필사함

Ben Bowden 편집

Ted Hildebrandt가 편집한 Rough